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제주도 개발 서막 연 길의 혁명 '5.16도로'

(17)성판악~영주교 미 개통 구간 인력으로 도로 뚫어

데스크승인 2013.05.26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5·16도로에서 12km 구간에 펼쳐진 숲 터널 전경. 양쪽의 나무가 아치형으로 뻗어 있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62년 공사 당시 이 일대는 미 개통 구간으로 원시 밀림으로 덮여 있어 도로를 뚫는 데 가장 힘들었던 난코스였다.

한라산 동쪽 해발 500~750m의 원시림을 관통하는 5·16도로는 총 연장 43km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생활권을 1시간으로 단축시킨 산북·산남의 대동맥이자 '길의 혁명'으로 꼽힌다.

이 도로는 2차 세계대전 말기 약 7만명의 일본군이 제주에 집결하면서 한라산에 저항기지를 구축하고 군용 및 전술도로로 이용할 목적으로 처음 개설됐다. 고지대의 하천에는 목교와 잠수교가 가설됐다.

1945년 해방 이후 활용은 됐지만 4.3사건에 따른 '한라산 금족령'으로 1949년부터 1954년까지 5년 동안 폐쇄됐다.

1957년부터 경제부흥 특별회계로 산천단에서 물장올까지 7.4km를 임시 보수하는 등 4년 동안 34km를 임시방편으로 길을 터놓았다.

이 길은 외도·오라·하귀 등 하천이나 해안에서 채취한 모래와 돌자갈을 운반해 깔아 놓은 '비포장 도로'였다.

그런데 해발 750m 최고점인 성판악에서 영주교까지 10.28km는 땀질 처방은 고사하고 사람조차 다니기 힘들었다.

4.3사건 반발 이후 1960년까지 10년 동안 우마와 차량 왕래가 없고, 인적도 끊기다보니 원시 밀림으로 변한 것이다. 길은 흔적만 간신히 남아 있었다.

1961년 5.16혁명이 일어났고, 혁명정부는 제12대 제주도지사에 김영관 해군소장을 임명했다.

앞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제주를 방문한 이후 한라산 횡단도로 개설 및 포장 등 제주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1962년 3월 24일 제주도청(현 제주시청) 앞 공설운동장 광장에는 2만여 명의 도민이 운집한 가운데 5·16도로 포장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1차 포장공사는 도청 앞에서 산천단까지 6.4km를 '침투식 마카담 공법'으로 포장했다. 이 공법은 사람의 손으로 골재를 균일하게 깎 다음 아스팔트를 살포해 압력을 가해 굳히는 것이다.

난공사는 성판악~영주교 간 10.28km 구간. 장비가 있어도 밀림 지대로 변모해 들어갈 수도 없었

는데 당시 보유한 건설장비도 변변치 않았다.

도로 폭 6.5m와 양쪽에 배수로 1m를 개설하는 공사하는데 곡괭이와 삽, 정을 이용하는 등 인력으로 충당해야 했다.

먼저 우거진 잡목을 베는 것을 시작으로 지게로 흙을 져서 날랐다. 화약을 이용하는 발파작업도 거의 없었고 순수하게 인부들의 땀으로 10km를 뚫어 나간 것이다.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1963년 10월 11일 일부는 비포장 도로인 상태에서 5·16도로 개통식이 열렸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기념식을 마치고 동시에 마이크로버스와 트럭 등에 시승해 양쪽에서 출발한 인사들은 수악교에서 합류해 기쁨을 나눴다.

김영관 지사는 서귀포에서, 조성근 건설부장관은 제주시에서 출발해 수악교에서 만났다.

서귀포시 지역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영화관은 이날 하루 무료 입장을 실시했고, 술집들은 술값을 깎아줬다.

그동안 제주시~서귀포시의 통행은 제주도의 반 바퀴를 도는 일주도로를 이용하면서 90km를 가는데 3시간 30분이나 걸렸다. 5·16도로가 개통되면서 거리는 43km로 가까워졌고,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과 산남의 생활시계를 '1시간'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당시 포장 도로는 폭이 4m에 불과했지만 이 도로의 개통으로 제주의 관광과 산업 발전에 역사적인 전환기를 마련했다.

20인승 마이크로버스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석이었다. 공무원과 회사원들은 제주와 서귀포를 오가며 출·퇴근이 가능해졌다.

막혔던 동맥에 핏줄이 돌면서 이후 5·16도로를 따라 제주시청·세무서·법원이 세워졌고, 제주대학교가 들어섰다. 이어 제주컨트리클럽, 성판악휴게소, 돈내코 등 관광지도 자리를 잡게 됐다.

1963년 '한라산의 기적'을 일궈낸 5·16도로의 개통과 포장은 제주도 개발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어승생수원지 준공(1969년), 일주도로 181km 전 구간 포장(1971년), 제2횡단도로(1100도로·1973년) 개통 등 대역사를 일궈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